astellas

ADVAGRAF

전문의약품

아드바그랍® 서방캡슐 0.5mg / 1mg / 5mg
타크로리무스수화물

원료약품의 분량

	아드바그랍®서방캡슐 0.5mg (1캡슐(55mg)중)	아드바그랍®서방캡슐 1mg (1캡슐(110mg)중)	아드바그랍®서방캡슐 5mg (1캡슐(550mg)중)
유효성분	타크로리무스수화물(별규) 0.51mg 함유 (타크로리무스로서 0.5mg)	타크로리무스수화물(별규) 1.02mg 함유 (타크로리무스로서 1mg)	타크로리무스수화물(별규) 5.1mg 함유 (타크로리무스로서 5mg)
첨가제 (동물유래)	유당일수화물 (소, 우유)	유당일수화물 (소, 우유)	유당일수화물 (소, 우유)
첨가제	에탈셀룰로오스, 히프로멜로오스, 스테아르산마그네슘, 경질캡슐제	에탈셀룰로오스, 히프로멜로오스, 스테아르산마그네슘, 경질캡슐제	에탈셀룰로오스, 히프로멜로오스, 스테아르산마그네슘, 경질캡슐제

성상

아드바그랍®서방캡슐 0.5mg
흰색분말이 든 상반부 밝은 노란색, 하반부 주황색의 경질 캡슐
아드바그랍®서방캡슐 1mg
흰색분말이 든 상반부 흰색, 하반부 주황색의 경질 캡슐
아드바그랍®서방캡슐 5mg
흰색분말이 든 상반부 회직색, 하반부 주황색의 경질 캡슐

효능·효과

1. 신장이식 : 동종의 신장이식 환자에 대한 거부반응 방지
2. 간이식 : 동종의 간이식 환자에 대한 거부반응 방지

용법·용량

1. 신장이식
성인 : 보통 초기에는 타크로리무스로서 체중 kg당 0.20 ～ 0.30 mg을 1일 1회 아침에 경구투여하고, 이후 서서히 감량한다. 유지량은 「권장 치저약물혈중농도」를 참고하여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2. 간이식
성인 : 보통 초기에는 타크로리무스로서 체중 kg당 0.10 ～ 0.20 mg을 1일 1회 아침에 경구투여하고, 이후 서서히 감량한다. 유지량은 「권장 치저약물혈중농도」를 참고하여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신장이식 및 간이식에서 일반적인 고려사항
앞에서 제시한 초기용량은 단지 지침으로 사용된다. 이 약의 투여는 각 환자별 혈중농도 측정과 함께 거부반응과 내성의 임상적 평가에 기초한다(아래의 「권장 치저혈중약물농도」 참고). 거부반응에 대한 임상적 증상이 분명한 경우, 면역억제제 투여계획의 변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투여방법
1일 1회 아침에 이 약을 투약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약은 블리스터에서 꺼낸 후 바로 복용하여야 한다. 건조제를 삼키지 않도록 지도한다. 캡슐은 액체(가급적 물)와 함께 삼킨다.
이 약은 일반적으로 최대 흡수를 위해 공복상태 또는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 ～ 3시간에 투여한다. 복용하지 못한 아침 투여분은 가능한 그 날 복용한다. 다음날 아침에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권장용량-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제제에서 이 약으로의 전환
1일 2회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제제(프로그람 캡슐)를 복용해 왔던 이식환자가 1일 1회 복용하는 이 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일 총투여량을 1 : 1(mg : mg)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약은 아침에 투여하여야 한다. 전환 이후 2주동안 타크로리무스 치저혈중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유사한 전신 노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투여용량을 조절한다.

특정환자군의 용량 조정
1) 간장애 환자
치저혈중농도를 권장 목표 범위내에 유지하기 위해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용량을 낮출 수 있다.
2) 신장애 환자
타크로리무스의 약동학이 신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용량 조절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타크로리무스의 신독성 가능성 때문에 신기능의 신중한 모니터링이 권장된다(연속적인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크레아티닌 청소율 산출, 소변배출량 모니터링 포함).
3) 성별
유사한 치저혈중농도를 얻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다른 용량이 요구된다는 근거는 없다.
4) 고령자
고령자에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없다.

신장이식 및 간이식에서 권장 최저혈중약물농도(Whole blood trough level)
투여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타크로리무스 전혈농도(whole blood level) 모니터링에는 여러 면역분석방법(immunoassay)이 이용가능하다. 발표된 문헌에서의 혈중농도와 실제 임상에서 측정한 혈중농도에 대한 비교는 채택된 분석법에 대한 자세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최근 임상 현장에서는 면역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전혈농도를 모니터링한다.
타크로리무스 치저혈중약물농도(C_{24})와 전신노출량(AUC$_{0-24}$)의 상관관계는 이 약과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제제, 두 제형에서 유사하다.
타크로리무스 치저혈중약물농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이 약의 최저혈중약물농도는 다음 약물 투여 바로 직전에(이전 약물 투여 후 약 24시간째) 측정하여야 한다.
이식 후 초기 2주 동안은 자주 최저혈중농도를 측정하고, 이후 유지기간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제제에서 이 약으로의 전환, 투여용량 조정, 면역억제 치료 변경 및 타크로리무스 전혈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과의 병용투여시에는 치저혈중약물농도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상호작용」 참조). 혈중농도 측정의 횟수는 임상적 필요에 따른다. 타크로리무스는 성소율이 낮으므로, 약물 투여량 조정 후 혈중약물농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수 일이 걸릴 수 있다.
임상시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환자에서 타크로리무스 치저혈중농도가 20 ng/mL 아래로 유지되는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혈중농도를 해석할 때에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이식 후 초기의 치저혈중농도는 간이식환자의 경우 5 ～ 20 ng/mL, 신장이식 및 심장이식 환자에서 5 ～ 15 ng/mL 이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면역억제제의 사용으로 인한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와 림프종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은 면역억제제의 치료에 대한 경험과 이식 환자의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만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 약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는 적절한 실험실과 기타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춘 상태에서 관찰되어야 하며 유지요법을 행하는 의사도 환자의 follow-up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야 한다.
2) 타크로리무스는 특히 고용량을 사용하였을 때 신경독성 및 신독성을 유발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한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무작위 시험에 의하면, 신독성은 이 약을 투여 받은 간이식 환자에서 각각 40 %와 36 %로 나타났다(이상반응항 참고). 신독성은 이식 후 초기에 보다 명백히 나타났는데, 크레아티닌의 증가와 오ban출량의 감소가 특징적인 증상이다. 신장애를 가진 환자는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이 약의 투여 용량도 감소되어야 한다. 용량 감소 후에도 계속적으로 크레아티닌이 상승되는 환자는 다른 면역억제제로 바꾸어 치료해야 한다. 타크로리무스와 다른 신독성이 있는 약물과 병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히, 과도한 신독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클로스포린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된다. 이 약 또는 시클로스포린은 서로 전환될 경우에 각각의 약물의 최종 투여로부터 24시간 이상 경과 후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이 약이나 시클로스포린의 농도가 높은 상태라면, 약물의 투여는 더욱 지연될 것이다.
3)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한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무작위 시험에 의하면 경증 ～ 중증의 고칼륨혈증이 이 약을 투여받은 간이식 환자에서 각각 45 %와 13 %로 나타났다(이상반응항 참고). 따라서 혈중 칼륨 농도를 자주 측정해야 하며 이 약 투여시 칼륨보전 이뇨제를 병용하지 않는다(상호작용항 참고).
4) 신경독성, 예를 들면 진전, 두통, 운동기능 및 정신상태의 변화 및 감각이상이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2개의 무작위시험에서 약 55 %의 간이식 환자에게 나타났다(이상반응항 참고). 진전과 두통은 고용량의 타크로리무스 복용과 관련이 있으며 용량 감소에 의해 소실된다. 이 약을 투여 받은 성인과 소아에게서 경련이 나타났다(이상반응항 참고). 혼수와 정신착란 또한 고농도의 타크로리무스에서 발견되었다. 타크로리무스로 치료받는 환자에게서 후부가역뇌증증후군(PRES)이 보고되었다. PRES의 징후는 두통, 정신상태 변화, 발작, 시각장애와 고혈압을 포함하며, 방사선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다. 만일 PRES가 의심이 된다든가 또는 진단된 경우에는 혈압을 잘 관리해야 하고 면역억제제를 즉시 감량할 필요가 있다. 이 증후군은 면역억제제의 감량 또는 중단에 의해서 증상이 회복되는 특징이 있다.
5) 다른 면역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와 마찬가지로, 타크로리무스를 투여 받은 환자도 림프종과 기타 다른 악성 종양, 특히 피부에서 암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 되었다. 이러한 위험성은 타크로리무스 자체가 가진 위험성이라기 보다는 타크로리무스의 강도와 지속성에 기인한 것이다. Epstein–Barr Virus(EBV)와 관련된 림프세포증식성 질환(LPD)이 보고되었다. 이 질환의 위험성은 면역억제제 복용시 EBV 감염에 걸릴 위험성이 더 많은 소아나 징기간의 면역억제 치료 후 이 약으로 전환된 환자에게서 더 크다. 면역계의 과다억제로 말미암은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 위험성 때문에 이 약은 다른 면역억제제와의 병용시에는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6) 면역이 억제된 환자는 잠복성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한 기회 감염의 위험이 높다.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에게서 BK바이러스와 관련된 신증과 JC바이러스와 관련된 PML(진행성 다초점 백질 뇌병증, 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감염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7) 타크로리무스 일반형 제제(1일 2회 투여)와 서방형 타크로리무스(1일 1회 투여)를 의도하지 않게 대체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약오류는 이식거부를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이나 타크로리무스에 대한 과다 혹은 과소 노출의 결과로 다른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환자는 1일 투여량 계획에 맞게 단일한 제형으로 투여되어야 하며 제형 또는 투여량의 변화는 이식 전문가의 엄격한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8) 이식후 당뇨병
임상시험에서 신이식 또는 간이식 후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인슐린의존성 이식후 당뇨(Post-Transplant Diabetes Mellitus, PTDM)의 발병이 보고되었다. 이식 전 당뇨의 병력이 없으면서 신이식후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를 치료받은 환자의 20 %에서 인슐린 의존성 PTDM이 보고되었다. 이식 1년째에 인슐린 의존성은 이러한 PTDM 환자의 15 %에서 가역적이었으며 2년째에는 50 %의 환자에서 가역적이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신이식 환자들에게서 PTDM이 진행될 위험성이 높았다. 미국 및 유럽의 무작위 시험에서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로 치료받은 간이식 환자 각각의 18 %와 11 %에서 인슐린 의존성 PTDM이 보고되었으며, 이식후 1년째에 이러한 미국 및 유럽 환자들 각각의 45 %와 31 %에서 가역적이었다. 고혈당은 미국과 유럽의 무작위 시험에서 간이식 수여자 각각의 47 %와 33 %에서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사용과 연관이 있었다.
9) 순수적혈구무형성증(PRCA)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보고되었으며, 보고된 모든 환자는 Parvovirus B19 감염이나 기저질환 또는 PRCA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병용약물 투여 등의 PRCA에 대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10)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 – 특히 강력한 CYP3A4 저해제 (텔라프레비르, 보세프레비르, 리토나비르, 케토코나졸, 보리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클라리트로마이신 등) 또는 CYP3A4의 유도제 (리팜핀, 리파부틴 등) – 이 병용되는 경우,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이 약의 노출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약의 혈중 농도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병용 시작 후 초기 며칠 동안 신속하고 빈번한 타크로리무스의 혈중 농도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CYP3A4 저해제와의 병용 시 신장기능 및 ECG의 QT 연장, 다른 이상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력히 권장된다(상호작용항 참고).
11)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위장관 천공이 보고되었으나 모든 경우 이식 수술의 합병증이거나 감염, 게실 또는 악성 신생물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판단되었다. 위장관 천공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중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증상이므로 위장관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현 즉시 수술을 포함한 적절한 처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12) 타크로리무스는 QT 간격을 연장시키거나 Torsade de Pointes를 유발할 수 있다. QT 연장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주의하여 복용하여야 한다. (선천성 혹은 후천성 QT연장, QT 간격을 연장시키거나 타크로리무스 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과 병용투여 등)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마크로라이드 화합물에 과민반응 환자
2) 시클로스포린 또는 보센탄을 투여 중인 환자(경고 및 상호작용항 참고)
3) 갈륨보전 이뇨제 투여 중인 환자(경고 및 상호작용항 참고)
4)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며, 갈락토오스 불내성 (galactose–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 (Lapp lacto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장애 환자(약물대사능이 저하하여 이 약의 혈중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 신장애 환자(신장애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3) 고령자(고령자에 대한 투여항 참조)
4) 감염증이 있는 환자(감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 참고)

4. 이상반응
1) 중대한 이상반응
(1) 순환기계 : 심근장애(ST–T 변화, 심기능 저하, 심내강 확대, 심실벽의 비후 등), 때때로 심부전, 심실성 및 상심실성 부정맥, 심근경색, 협심증, 심막액저류, 빈도불명으로 QT간격 연장 및 Torsade de pointes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할 때에는 심전도, 심에코, 흉부X선 검사 및 기타 다른 검사를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신중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신장 : 급성신부전과 신증후군이 때때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상검사(크레아티닌, BUN, 크레아티닌청소율, 요단백, 요중NAG, 요중베타마이크로글로불린 등)를 자주 행하고 혹은 그 외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약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혈전미세혈관장애 : 때때로 용혈요독증후군, 혈전혈소판감소자색반병 등의 혈전미세혈관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혹은 적절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혈액계 : 때때로 범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자색반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순수적혈구무형성증(PRCA), 무과립구증 및 용혈성 빈혈(각각, 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와 혹은 적절한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경련 : 때때로 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정폐색증 : 때때로 정폐색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감염증 : 세균성, 바이러스성 또는 진균, 원충성 감염증(15 %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뿐만아니라 예전에 존재한 감염증도 악화될 수 있다. 전신적, 국소적 감염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시클로스포린 약물군에 비하여 이 약 약물군이 CMV감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항생물질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8) 림프종 등의 악성종양 : 때때로 Epstein–Barr virus와 관련된 림프증식성 질환 또는 림프종(초기증상: 발열, 림프절종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특히 2세미만의 수유례, 유아례 또는 항림프구항체의 병용례에서 발현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도한 면역억제로 인하여 악성종양의 발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충분히 관찰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량, 투여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9) 중추신경계 : 가역적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PRES: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을 포함한 중추신경계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전신경련, 의식장애, 착란, 언어장애 및 시각장애(피질맹 포함), 반신불수 등이 외국에서 보고 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신경학적 검사, CT, MRI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감량, 투여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10) 뇌혈관계 : 때때로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11) 간질폐렴 :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는 간질폐렴(빈도불명 : 자발보고로 빈도 산출 불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신속하게 흉부X선검사, 흉부CT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증과의 감별진단을 염두에 두고 뚜시피침흡호문계의 투여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12) 대사 : 때때로 당뇨병 및 당뇨병의 악화, 고혈당(15 %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량, 투여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13) 췌장 : 때때로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히 관찰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량, 투여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14) 피부 : 때때로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15) 호흡기계 : 때때로 호흡곤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량, 투여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기타의 이상반응
다음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증상에 따라 감량, 투여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1) 신장 : 신장애(BUN상승, 크레아티닌 상승, 크레아티닌청소율 저하, 단백뇨), 때때로 요량감소, 다뇨, 드물게 빈뇨, 잔뇨감
(2) 대사이상 : 요당, 고칼륨혈증 혹은 고뇨산혈증, 저마그네슘 혈증, 때때로 산증, 고글레스테롤혈증, 고인산혈증, 저인산혈증,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고염소혈증, 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당뇨
(3) 순환기계 : 혈압 상승, 때때로 부종, 빈맥, 두근거림, 심전도 이상, 혈압저하(각각 5 ～ 15 % 미만), 드물게 서맥
(4) 정신신경계 : 운동실조, 환각, 진전, 때때로 두통, 감각이상, 몰입, 설망, 몰먼증, 저림, 드물게 눈떨림, 시지경직, 마비, 흥분, 감각이상, 몰먼, 경먼, 의식혼탁, 부위 감각상실, 엿소리, 우울증, 흥분
(5) 소화기계 : 가슴통증, 복부팽만감, 때때로 정주통장애, 식욕부진, 설사, 복통,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대장염, 구내염, 구역, 구토, 흑색변, 드물게 하혈, 위장관 천공(빈도 불명)이 보고되었다.
(6) 췌장 : 때때로 아밀라제 상승
(7) 간장 : 때때로 간기능이상(AST 상승, ALT 상승, ALP 상승, LDH 상승, γ –GTP 상승) 드물게 황달
(8) 혈액계 : 때때로 빈혈, 혈소판 수의 증가 또는 감소, 백혈구감소증, 백혈구증대증, 드물게 림프구감소증
(9) 피부 : 때때로 가려움, 탈모, 홍반, 발진
(10) 기타 : 세뇨관괴사, 비대심근장애(특히 소아), 여성형유방, 혈관확장, 인산염의 혈중농도 감소, 때때로 흉막삼출, 복수, 천식, 발열, 체중감소, 화끈거림, 전신권태감, 월경과다 드물게 근육통, 관절통, 미각이상, 재생불량성 빈혈, 뇌경색, 대장염, 독성표피괴사융해(라엘증후군), 녹내장, 케톤증, 안구진탕증, 조증, 수막염, 거비증,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색반병, 혈전증, 혈관염, 이후이물감등이 보고되었다. 자발보고로 인해 빈도산출이 불가능한 기타 이상반응으로서 통증*, 안구통증, 발직, 뎀파다, 구갈, 체온변화느낌, 시신경병증, 발열성호중구감소증이 보고되었다.

* 일부 사례는 사지통증이 캄시뉴린 억제제 유도 통증 증후군(Calcineurin inhibitor induced pain syndrome,CIPS)의 일부로 보고되었고, 이는 수로 양측에 대칭적으로 심한 통증이 하지에서 티고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미국, 유럽의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간이식〉
가장 빈번히 나티나는 이상반응은 전전, 두통, 설사, 고혈압, 구역 그리고 신기능 장애이다. 이러한 이상반응들은 타크로리무스의 경구투여 혹은 정맥내 투여에 의해 나타나고 용량이 감소하면 반응도 줄어든다. 설사는 때때로 구역에이나 구토와 같은 위장관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다.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를 투약받은 환자에서 고칼륨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이 나티났다. 고혈당증이 많은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몇 명의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가 요구될 수 있다(경고항 참조).
이상반응 발현율은 간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2개의 무작위 비교 시험에서 조사되었는데, 514명은 타크로리무스와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았고 515명은 시클로스포린–based regimen을 투여 받았다.
1건 이상의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는 타크로리무스군에서 99.8 %였고, 시클로스포린군에서 99.6 %였다. 12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을 실시하였으며 두 연구는 서로 다른 환자 구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강도의 면역억제제로 투여 받았다. 타크로리무스에서 15 % 이상 보고된 이상반응은 〈표1〉과 같다.

〈표1〉 간이식환자에서 15 %이상 보고된 이상반응

(단위 : %)

	미국 STUDY		유럽 STUDY	
	타크로리무스 (n = 250)	시클로스포린 (n = 250)	타크로리무스 (n = 264)	시클로스포린 (n = 265)
신경계				
두통(경고 참고)	64	60	37	26
진전(경고 참고)	56	46	48	32
몰먼증	64	68	32	23
감각이상	40	30	17	17
소화기계				
설사	72	47	32	27
구역	46	37	32	27
변비	24	27	23	21
작전두힘위(LFT) 비정상	36	30	6	5
식욕부진	34	24	7	5
구토	27	15	14	11
심혈관계				
고혈압 (일반적수의 참고)	47	56	38	43
비뇨기계				
신기능 이상 (경고 참고)	40	27	36	23
크레아티닌 증가 (경고 참고)	39	25	24	19
혈액요소질소(BUN) 증가(일반적수의 참고)	30	22	12	9
요로 감염	16	18	21	19
빈뇨	18	15	19	12
대사와 영양				
고칼륨혈증 (경고 참고)	45	26	13	9
저칼륨혈증	29	34	13	16
고혈당 (일반적 주의 참고)	47	38	33	22
저마그네슘혈증	48	45	16	9
혈액과 림프계				
빈혈	47	38	5	1
백혈구증가증	32	26	8	8
혈소판감소증	24	20	14	19
기타				
복통	59	54	29	22
통증	63	57	24	22
발열	48	56	19	22
무력증	52	48	11	7
요통	30	29	17	17
복수	27	22	7	8
사지부종	26	26	12	14
호흡기계				
흉막삼출	30	32	36	35
무기폐	28	30	5	4
호흡곤란	29	23	5	4
피부 및 사지				
가려움	36	20	15	7
발진	24	19	10	4

〈신이식〉
미국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주요 이상반응은 감염, 진전, 고혈압, 신기능감소, 변비, 설사, 두통, 복부통증, 몰먼증이다. 타크로리무스 투약환자에서 15 %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표2〉 신이식환자에서 15 %이상 보고된 이상반응

(단위 : %)

이상반응	타크로리무스(n = 205)	시클로스포린(n = 207)
신경계		
진전 (경고 참고)	54	34
두통 (경고 참고)	44	38
몰먼증	32	30
감각이상	23	16
어지럼	19	16
소화기계		
설사	44	41
구역	38	36
변비	35	43
구토	29	23
소화불량	28	20
심혈관계		
고혈압(일반적주의 참고)	50	52
홍종	19	13
비뇨기계		
크레아티닌 증가 (경고 참고)	45	42
요로감염	34	35
대사와 영양		
저인산혈증	49	53
저마그네슘혈증	34	17

이상반응	타크로리무스(n = 205)	시클로스포린(n = 207)
고지혈증	31	38
고칼륨혈증(경고 참고)	31	32
당뇨(일반적 주의 참고)	24	19
저칼륨혈증	22	25
고혈당(일반적 주의 참고)	22	16
부종	18	19
혈액과 림프계		
빈혈	30	24
백혈구감소증	15	17
기타		
감염	45	49
사지부종	36	48
무력증	34	30
복통	33	31
통증	32	30
발열	29	29
요통	24	20
호흡기계		
호흡곤란	22	18
기침 증가	18	15
근골격계		
관절통	25	24
피부 및 사지		
발진	17	12
가려움	15	17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제3상 임상시험에서 타크로리무스를 투여받은 신이식, 간이식 환자들에서 발생한 발현률 3 % 이상 15 % 미만의 이상반응들은 다음과 같다.
(1) 신경계(경고항 참고) : 수면장애, 동요, 걱정, 혼란, 우울, 다행증/다행감, 꿈, 비정상적인 생각, 졸음, 반사소실, 정서불안, 환각, 긴장과다, 조화곤눔, 간대성근경련 신경증, 신경장애, 정신병, 불면, 사고불능, 진망증, 어지럼, 뇌병증, 출혈성뇌졸중, 두통, 단무전마비, 신경압박, 신경질, 신경통, 감각이상, 이온마비, 사지말온전마비, 서자(書字)장애, 실어증
(2) 특수감각기계 : 시각장애, 악시, 귀울림, 백내장, 눈부심, 난청, 귀통증, 중이염
(3) 소화기계 : 담관염, 담즙울체성 황달, 소화불량, 방귀, 위장관 출혈, γ –GTP 증가, 위장관 천공, 간염, 식욕 증가, 황달, 간손상, 경구 모낼리아증, 삼킴곤란, 식도염, 위염, 직폐쇄, 간기능검사이상, 직장장애, 구내염, 식욕부진, 설사, 십이지장염, 위장자내공기상, 위식도염, 위장관장애, 육아종간염, 구역, 구토, 궤양식도염, 췌장가성낭종
(4) 심혈관계 : 가슴통증, 비정상적인ECG, 출혈, 저혈압, 빈맥, 협심증, 중증혈관성장맥염, 기립저혈압, 말초혈관장애, 부정맥, 심방세동, 노인맥, 심장 전맹림, 심폐상실, 심폐상실, 울혈성심장기능상실, 심부혈전정맥염, 심장초음파이상, 심전도 QRS complex 이상, 심전도 ST complex 이상, 심장기능상실, 심박동수 증가, 실신, 혈전증, 혈관확장
(5) 비뇨기계 : 혈뇨, 신부전, 방광염, 배뇨곤란, 수신증, 신관교사, 야간다뇨증, 고름뇨, 농종성 신장병증, 급성신장기능상실, 단백뇨, BK–virus팥병증, 방광연축, 소변감소증, 절박뇨실금, 빈뇨, 요실금, 요혹직, 요폐
(6) 대사 : 산증,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증가, 알칼리증, 빌리루빈혈증, 치유불능, 고지질혈증, 고인산혈증, 고뇨산혈증, 저칼슘혈증,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저인산혈증, 고칼륨혈증, 저인산혈증, 말초부종
(7) 내분비계 : 당뇨병, 쿠싱증후군
(8) 혈액계/림프계 : 응고장애, 반상출혈, 저색소성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 감소, 직혈구 증가, 프로트롬빈 감소, 혈장실 감소, 헤마토크리트 증가, 헤모글로빈 이상, 백혈구 증가
(9) 근골격계 : 관절통, 전신성 경련, 사지 경련, 근육통, 근무력증, 골다공증, 관절질환, 통증성근육경련(cramps), 운직임 감소
(10) 호흡기계 : 천식, 기관지염, 기침 증가, 폐 질환, 폐부종, 인두염, 폐렴, 호흡 징애, 비염, 부비강염, 음성 변화, 기흉, 호흡곤란, 말꾹질, 폐기능감소, 흉막삼출
(11) 피부 : 탈모, 단순포진, 다모, 피부질환, 땀, 여드름, 찬규피부염, 피부변색, 피부궤양, 박탈피부염, 대상포진, 피부 양성신생물
(12) 기타 : 복부 비대, 고름집, 오한, 탈장, 복막염, 광과민성 반응, 알레르기반응, 세포염, 인플루엔자 유사증후군, 패혈증, 복부통증, 우발손상, 무력증, 등통증, 연조직염, 넘어짐, 느낌이상, 발열, 전신부종, 온도 못견딤, 궤양

4)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
(1) 국내에서 6년 동안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 결과 추가로 나티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대상포진(1.5 %)
(2) 이 약의 투여량이 증가할수록, 혈중농도가 높을수록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티났다.
5) 국내 유해사례 보고자료(1989–2010년)를 검토 분석한 결과 다른 의약품에서 발생한 유해사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유해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근골격계 : 다리통증
• 혈액계 : 순수적혈구무형성증
• 위장관계 : 위식도역류
6) 국내 시판 후 수집된 중대한 이상사례 분석 · 평가 결과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감염 : B형간염 새활성화로 인한 간실조

5. 일반적 주의
1) 이 약 치료시 고혈압이 가장 흔한 이상반응이다(이상반응항 참고). 경증 ～ 중등도의 고혈압이 심각한 고혈압보다 더 자주 나티난다. 항고혈압약의 복용이 필요하다. 혈압의 조절은 어떠한 약물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이 약은 고칼륨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칼륨유지성 이뇨약은 피해야 한다. 칼슘길항약이 이 약에 기인한 고혈압 치료에 유용하나 이 약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용량의 감소가 필요하다(상호작용항 참고).
2)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한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무작위 시험에 의하면, 이 약을 투여받은 간이식환자에서 고혈당증이 각각 47 %와 33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치료가 필요하였다(이상반응항 참고).
3) 신장애 또는 간장애 환자
신장애를 가진 환자에게는 용량의 감소가 필요하다(용법 용량항 참고). 간이식후에도 간장애를 나타내는 환자는 타크로리무스의 높은 혈중농도에 의한 신장애가 나티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자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용량의 조절도 고려해야 한다.